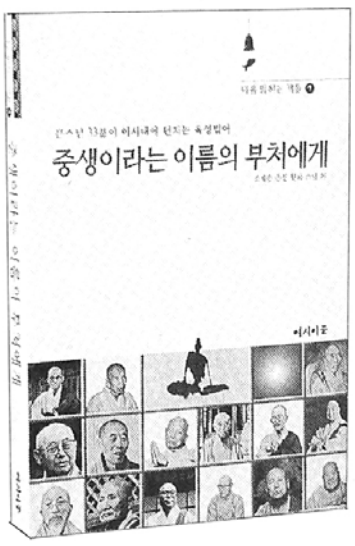
"어떻게 살아야 할까" 33고승에게 듣는다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본지 지상법석 1차묶음

수행의 결정 쉽게 이야기한 생활 活句

한국 불교선맥 가늠하는 법어집 평가

살아있는 전설, 한국불교의 큰스님 33인이 이 시대 불자들을 향해 토해 낸 사자후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 됐다.

본사 부설 도서출판 여시아문은 본지 창간 2주년을 기념해 현대 한국불교의 큰 산맥을 이루고 있는 33인 스님이 이 시대에 던지는 육성법어를 한 데 모은 법어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펴냈다.

〈…부처에게〉는 본지 창간부터 독자들에게 최고의 인기코너로 자리매김하며 인기리에 연재중인 '지상법석(紙上法席)'에 출연한 큰스님 가운데 종정 및 전 종정, 원로회의 의장, 5대총림의 방장스님들과 오랜 정진을 한 원로스님들 가운데 불교계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한 33인의 법어를 여과없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근 입적한 송광사 방장 승찬스님을 제외하고 전원이 생존하는 현대 고승이란 점에서 살아있는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법어집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처에게〉는 또한 생존하는 큰스님들의 상당법어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았다는 사실도 관심을 모으지만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전국 각지의 산간오지에 주석하고 있는 큰스님을 직접 친견하기도 힘들뿐더러, 생존하는 큰스님의 법어를 현재의 사진과 함께 기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큰스님이 불자들을 마주해 얘기해 주는듯한 구어체 법문이 큰스님들의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사자후를 생동감있게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책에 수록된 스님은 월하 서옹 혜암 원담 승찬, (이하 가나다 순) 고송 관응 능가 대정 덕암 도원 범룡 범행 벽암 비룡 서암 석주 성수 성찬 송담 송월 숭산 우룡 운제 월산 일타 지종 진제 철응 청하 청화 화산 활안 스님. 속세에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고승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33인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적인 대표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것이 편집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2부중(二部衆)'이라는 오랜 승가의 전통에도 불구 비구니 스님이 한 분도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

〈…부처에게〉는 독자들에게 시사성있는 신문 지면을 통해 시의적절한 생활속의 수행 방편을 현실감 있게 전한 큰스님들의 법문이란 점에서 그야말로 어지러운 현세에 '활구(活句)의 법음(法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국판 336쪽, 7천원.

김재경 기자

법장의 화엄교학사상 규명

계환스님 '중국화엄사상사 연구' 펴내

◇계환스님

중국화엄사상을 집대성한 법장(法藏; 643~712)의 화엄교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서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계환스님이 펴낸 〈중국화엄사상사연구〉(불광 刊)가 그것. 계환스님이 일본 교토(京都)불교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법장교학의 사상사적 연구〉를 번역 수정한 이 책은 종래 법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장교학의 사상사적 의의를 규명함으로써 화엄사상이 중국인의 의식구조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를 밝힌 이 책은 화엄종의 초조인 두순(杜順)으로부터 5조인 종밀(宗密)을 비롯, 이통현장자(李通玄長者)와 혜원(慧苑)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화엄종장들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화엄사상사는 물론 중국불교사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제1장 〈화엄경〉 역경의 전모와 화엄종 성립 이전까지의 연구 경향, 제2장 화엄교학 성립의 모체인 지론(地論)·섭론(攝論)학파의 교학 규명, 제3장 법장의 전기, 제4장 법장 저작에 관한 제문제, 제5장 법장교학의 사상사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고찰, 중국불교사에서의 법장의 위치를 재검토했다. 법장은 전불교의 종합화를 지향한 중국화엄사상의 집대성자로 알려져 있다.

화제의 책

금강경 육조대사 구결 — 이동형 옮김

고려 나적스님 판본 국내최초 번역

〈대장부론〉의 저자 이동형씨가 펴낸 〈금강경육조대사구결〉은 1084년 고려 나적(羅適)스님이 서문을 쓰고 편찬한 〈금강경〉 육조해의(六祖解義)와 구결(口訣)을 번역한 책이다.

이 판본이 기존의 다른 판본과 3백여자 이상이나 다른 한자가 발견된 점도 서시학·교학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부록에 소개한 △5온과 100法의 관계도표 △18계 12처 5온과 색심(色心) 2법의 관계도표 △12연기와 3세인과 관계도표 등 4개의 도표는 유식학 관계의 도표로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운주사 6천5백원〉

발굴이야기 — 조유전 지음

한국 고고학 애환 50년 뒷얘기 담아

30년 넘게 고고학의 외길을 걸어 온 조유전 국립민속박물관장(54)이 펴낸 〈발굴이야기〉. 1946년 경주 신라 호우총발굴 이래 반세기에 걸친 발굴성과와 뒷얘기를 담은 이 책은 한국 고고학의 영욕과 저자 개인의 애환이 흥미롭게 묘사돼 있어 쉽게 읽을만한 고고학 저술이다.

저자가 참여한 대표적인 발굴작업으로는 무녕왕릉(1971년), 천마총(1973년), 황룡사터(1976년), 감은사터(1979년), 익산 미륵사터(1980년)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저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발굴은 황룡사지 발굴. 일본인 학자에 의해 왜곡된 황룡사 가람 배치를 우리의 손으로 정확하게 밝혀냈기 때문이다. 반면 감은사지 발굴 당시 허탕으로 끝난 대왕암 앞바다 '감은사 대종 찾기 작전'은 불확실한 제보로 느낀 허탈감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대원사 8천5백원〉

출판학제

반야심경 해설서 2권 동시출간

백운스님·송지호법사

◇백운스님

◇송지호법사

〈반야심경〉 해설서 2종이 도서출판 대흥기획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백운스님(강원불교대학장)의 〈반야의 세계〉와 송지호법사(전 군산수산대 교수)의 〈반야의 가르침〉이 그것.

백운스님의 〈반야의 세계〉가 전통적인 〈반야심경〉 주석서를 바탕으로 한 원전 해석에 치중한 반면, 송지호법사의 〈반야의 가르침〉은 심경에 나타난 난해한 용어를 다양한 경전과 구체적인 예를 들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다.

〈반야의 세계〉는 〈반야심경〉 주석서인 〈반야심경 사관해(事觀解)〉와 〈반야심경 이성해(理性解)〉를 원전으로 하여 자세한 해석을 달았다.

〈반야의 가르침〉은 〈반야심경〉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야 지혜(마음자리의 밝은 빛) △바라밀다(본바탕으로 돌아가는 마음) △6바라밀(원래 간직한 마음) △5온 개공(몸과 마음의 정체) △색즉시공(의심을 끊은 상쾌한 마음) △12인연법(탐욕과 애욕을 버리는 마음)△구경 열반(얻을 없는얻음의 마음) 등 어려운 용어를 예를 들며 쉽게 설명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4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5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6	그 마음을 바꿔라	김재웅	용 화
7	법화경 요품강의	현 해	민족사
8	무소유	법 정	샘 터
9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10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집부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밀린다왕문경

김 종 명
(수필가·원각회보 편집인)

그리스 王과 비구승 대화록

풍부한 사례로 교리 쉽게 설명

한글 대장경을 비롯하여 여러 경전의 번역본과 쉬운 불교서적들이 잇달아 발행되어 불교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에서 간행한 현대불교신서 가운데 서경수(徐景洙)역 〈밀린다왕문경(彌蘭陀王問經)〉도 그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경은 기원전 2세기경 서북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의 왕 밀린다(Milinda)와 불교의 승려인 나가세나(Nagasena)와의 대화 형식으로 엮어진 경전이다.

한역으로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이라고 한 이 경은 동진(東晋)시대에 한문으로 번역되었으나 역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고려대장경에는 2권으로, 송나라 장경에는 3권본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팔리어본도 있다.

사실 이 경은 경이라고 하지만 불설(佛說)이 아니며 나가세나와 밀린다왕이 문답한 요지를 적은 것으로 팔리어 삼장(三藏)에서는 장외(藏外)에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2세기경 서북 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인 바크트리아국왕 밀린다가 불교의 선지식(善知識)인 나가세나스님에게 질문을 하면 나가세나스님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대화형식으로 된 성전이다.

이 경은 그리스적인 사유(思惟)와 인도 내지는 불교적 사유와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동서의 만남이라고 일컬어진 두 현자의 문답을 담은 점에서 사상적인 의의와 가치가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부유한 바라문의 가정에 태어난 나가세나 비구의 출가수도한 차례를 적고, 이어서 밀린다왕과의 문답에 이르러서는 왕이 불교에 대하여 어려운 질문을 하면 나가세나는 낱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들어 증거하면서 불교 교리에로 귀납하여 그 이치를 분명하게 말하였다.

역자도 밝힌 바와 같이 이 경은 현대인을 위한 불교입문서라고 할만큼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대목들이 많다.

이 경을 읽어나가는데 있어서 느낄수 있는 것은 질문의 하나하나가 조금도 낡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자신이 질문하여 의문을 풀고 싶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 제기되고 있다. 나가세나 비구의 해답도 우리들의 심금을 울린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은 인도 일반의 특색이지만 유식한 불교의 학승이, 알기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아주 쉽게 풀이하려고 한 자세에는 누구라도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2천여년이나 경과한 오늘에 와서는 나가세나스님의 해답이 다소 초현실적인 설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와 사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 그 핵심적인 면에 있어서의 상이점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